한국의 스킨케어 화장품 회사인 더샘 광복점&서면점(대표 김지선)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산연탄은행에서 운영하는 밥상공동체 안의 어르신 250명께 화장품 세트 250세트를(1,250만 원 상당)을 선물하여 노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기쁨을 선물하는 시간을 가졌다.부산연탄은행 밥상공동체는 매년 5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8일날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음식과 더샘 화장품 세트 선물로 훈훈한 어버이 사랑을 새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날 행사에 후원을 해주신 더샘 김지선 대표는 “작은 마음으로 드린 사랑인데 큰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깊은 감사를 전해주시는 연탄은행 대표님 모습에 오히려 큰 감동을 느끼면서 추후 부산연탄은행과 함께 다양한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다”라고 전해왔다.부산연탄은행은 2004년 설립되어 정부의 지원이 아닌 부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에너지지원사업 외에, 다양한 지역복지운동과 밥상공동체 어르신 무료 식사 등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앞장서고 있다.더샘 남포동&서면점은 지난 달 30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산연탄은행에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화장품 250세트를 나누기 위한 후원 전달식을 진행했다.부산연탄은행은 오는 8일 밥상공동체 밥상나눔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더 사랑 전해효’라는 이름으로 어버이날 행사를 연다. 특식, 선물 등을 준비해 참석하시는 어르신 200명에게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한다.더샘 남포동&서면점 사장 김지선은 “어버이 은혜에 뜻 깊은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나눔으로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지선 사장은 이번 기부 외에도 직접 연탄은행에서 진행하는 밥상나눔 봉사에도 참여하며 이웃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는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부산연탄은행 강정칠 대표는 “어버이날이면 사랑이 더 필요한 법인데, 그 사랑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 귀중하게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국의 스킨케어 및 화장품 회사인 더샘은 여성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최고의 뷰티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되었다. 더샘은 대자연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 최첨단 추출 및 생산 기술을 활용하는 친환경 화장품 회사이다.부산연탄은행은 2004년 감천 연탄창고를 시작으로 부산 전지역 주민 대상으로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지원사업과 청소년부터 고령세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부산연탄은행은 후원과 봉사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창작 스페이스 사부작, Social Lounge “뜰”을 운영하며 대상자 뿐만 아니라 후원자, 봉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고 있다.